

# 2026 설날 가정예배

목 상 기 도 ..... 다 같 이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전능하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28장 /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같 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대 표 기 도 ..... 인 도 자  
 (가족 중에서)

성 경 봉 독 .....시편 128편 1-4절..... 다 같 이

-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설 교 ..... 복을 받은 행복한 가정 ..... 인 도 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소중하고 복된 **작은 천국 공동체**입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기쁨이 되며, 서로의 힘과 필요가 되고 또한 의미가 됩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인 가족이 항상 **“복을 받은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한 가정을 구성하는 ‘남편(1절)’과 ‘아내(3절)’ 그리고 ‘자녀(3절)’들이 등장합니다. 이 가정의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아내는 ‘집 안방에 있는 사람’**으로,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로 묘사됩니다.

이들이 **복을 받은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려면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1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길’은 은유로서 교훈과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삶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별로 복되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변하는 세상에서 불변하는 기준을 갖고 사는 자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의 견고한 산성이 되어 주시며, 이런 가정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은 가정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가정이라 말합니다.

**복을 받은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는 **“손으로 일하며 사는(2절)”** 가정입니다. 본문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으로 일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울도 손수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먹을 것이다’의 ‘먹다’는 ‘즐기다’ 혹은 ‘누리다’의 뜻으로,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수확하여 그것을

누리며 즐기는 가정은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받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냄(창3:18)에도 불구하고, 손이 수고한 대로 즐기며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형통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행복한 가정은 뿌린 대로 거두고, 성실히 일한 만큼 열매 맺으며, 수고한 대로 누리는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받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집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3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귀한 유실수로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들입니다. 포도나무 자체는 연약하지만 가장 달콤한 포도와 향긋한 포도주를 만들므로,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신약성경에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감람나무 또한 마찬가지로 이 나무는 수천 년을 살며 세월이 갈수록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식탁에 둘러앉아 식탁교제를 나누는 자녀는 앞으로 맺어갈 좋은 열매를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은 행복한 가정을 즐기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꽃피는 가정으로, 기도의 전성기, 은혜의 전성기를 누리는 2026년 한 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 심 기 도 ..... 다 같 이

1. 2026년 새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행복한 가정되게 하소서.
2.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는 가정되게 하소서.
3.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소서.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